

1강.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룻기의 큰 그림(1:1; 4:17)

I. 오늘의 포인트

1. 룻기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한다.
2. 룻기가 위치한 성경의 배열 순서를 통하여 나타난 큰 그림의 내용을 이해한다.
3. 룻기를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데 큰 방향성과 구체적 방법을 이해한다.

II. 본 론

A. 4막으로 구성된 멋진 역사 이야기

- 제 1 막: 엘리멜렉 집안의 모압 이민과정, 이후 모압에서의 집안의 몰락, 두 과부가 약속의 땅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1장)
- 제 2 막: 의지 할 데가 없는 두 과부가 약속의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은 이야기(2장)
- 제 3 막: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이야기(3장과 4장 전반부)
- 제 4 막: 결혼후 받은 축복과 태어난 아이가 다윗왕의 증조부의 족보로 소개되는 이야기(4장 후반부)

B. 일반적으로 룻기를 어떻게 들어왔는가?

- 1) 여전도회 헌신예배때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복받은 며느리 이야기
- 2) 착한 윤리 도덕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룻, 보아스처럼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면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
- 3)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기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용기있는 여인들의 이야기
- 4) 인종차별 철폐운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방(모압)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왕의 선조까지 된 이야기

C. 룻기의 성경 배열 위치로 설명되는 큰 주제 소개

- 1) 히브리 성경 배열: 잠언 뒤에 룻기가 배치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임을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다. 즉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말씀의 통해 받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사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잠언 맨 마지막 장인 31장에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역사적 샘플로 '룻'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룻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되새기고자 히브리 사람들은 추수의 계절인 칠칠절 절기에 룻기를 읽도록 하고 있다.

2) 헬라성경, 일반 역본들 배열: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이 사무엘서가 배치됨.

룻기의 등장인물들의 시대적 배경으로 사사시대이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큰 죄악과 곤경중에 빠진 시대였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인도할 참된 왕의 필요성에 초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논조이다.

룻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왕으로 섬길 다윗왕의 조상들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며 다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사무엘서는 룻기에 이어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왕으로 섬겼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복된 통치가 인간 다윗 왕의 대리 통치로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큰 역사의 흐름속에서 본다면 룻기는 단지 한 개인과 가정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인생이 하나님안에 헤세드(은혜)를 입음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삶이 하나님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어나가는 역사의 한 분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헤세드(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 룻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

1) 은혜로 대하는 사람들

*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1:8)

*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2:4a)

*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2:4b)

* 보아스가 룻에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2:12)

*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축복의 말을 룻에게!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2:19)

* 원로들과 마을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4:11-12)

* 이웃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4:14)

2) 하나님의 직간접적 돌보심

* 베들레헴에 기근대신에 풍년을 주심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1:6)

*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추수때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1:22)

* 룯이 간 밭이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밭이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2:3)

* 보아스와 룯사이에 아이를 허락하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4:13)

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참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말씀에 따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준비하셨다.

III. 적 용

1. 성경을 볼 때 전체적 그림을 보려는 관점으로 룯기를 보려고 한다.
2. 전체 그림을 잘 몰라도 내 수준에서 현재 내가 당면한 삶속에서 은혜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속에 쓰임받는 의미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3.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흐름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전체 그림을 내가 잘 몰라도 지금 내 수준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은혜로 반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4.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의 어떤 부분에 쓰임 받았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보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김으로 내 삶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